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나를 위한 은총의 잔치 2008년 제1차 청지기훈련

주제 :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세기 15:1)

일시 : 2월 22일(금), 저녁 7시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2008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는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세워 가는 일에 전심전력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말려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제1차 청지기훈련이 열립니다. 청지기훈련은 교회의 직분자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보혈의 은총을 받은 충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은총의 잔치입니다.(골 1:14)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다음을 기억하지 마시고, 22일에 열릴 은총의 잔치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복음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특히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종교인이요, 지식인이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갔을까? 그는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는 무엇인가 진실과 권위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가장 지식 있는 종교지도자 니고데모와 훌륭한 선생님과 만남이다.(요 3:1~2)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요 3:10) 그의 종교적인 배경이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 것이다. 종교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에 관하여 각각의 개념을 심어 준다.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대하게 될 때에 반대하게 되고 적대감을 갖는다. 이제 예수님은 영적 소경인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신다.(민 21:7~9; 요 3:14~16)

눅 19:11 민수기 21장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항과 불평을 기록하였다.(민 21:6)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독사를 보내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중개역할을 해 주기를 원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뿔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높이 들어올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뱀뿔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뱀뿔의 이야기이다. 뱀뿔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따라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요 12:32~33)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과 새 삶을 위해서 뱀뿔처럼 매달리신 것이다.

반항과 그 결국 뱀뿔의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5절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자들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하심을 배척하는 것이 곧 저들이

범한 죄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없고 성령이 실제적인 삶과 별로 관계가 없게 된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역겨운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창 2:17)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뱀을 통하여 왔으며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결과는 같다. 죄의 값은 아직도 사망이며 사망의 표시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진짜 원인은 죄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심판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이다.(요 3:36) 뱀뿔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허물을 단순하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자비를 간구하였다.(민 21:7)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한 회개는 있을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이름이 대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롬 5:8~9)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우셨고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셨다.(히 9:14~15)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친히 공급하는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임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뱀에 물린 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뱀뿔을 바라보고 사는 대신 이를 거부한 자도 있었을 것이다.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하면 믿음이 가능하냐?”라고 말하는 것이다. 뱀뿔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 죽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자신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 것이다. 뱀뿔은 몸이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길이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은혜와 자비에 얼굴을 드러내 바라본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므로 반드시 죽는다.(롬 6:23) 이는 단지 몸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포함한다.(계 20:12,15) 이토록 끔찍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대담뿐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FORGIVENESS

(2) And they brought to Him a paralytic lying on a bed. Seeing their faith, Jesus said to the paralytic, "Take courage, son, your sins are forgiven." (6) "But so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then He said to the paralytic "Get up,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7) And he got up, and went home. (8) But when the crowds saw this, they were awestruck, and glorified God, who had given such authority to men.(Matthew 9:2~8)

During Jesus' earthly ministry, many people came to Him seeking help. In today's Bible passage, a paralytic lying on a bed is brought before Him for healing. Four courageous men carried the lame man to the roof, cut a hole in it, and lowered him down next to where Jesus was standing.(Mk. 2:3~4) The crowds around Jesus were so thick that these four men cleverly found a way around them. Jesus did not mention their determination, love, or sacrifice, but He did see their faith, "Seeing their faith, Jesus said to the paralytic, "Take courage, son; your sins are forgiven."(v. 2) He did not speak to the faithful four, just the sick man. His words were strange. The scribes in the crowd thought He was blaspheming, and the paralytic probably was wondering inside how in the world this guy could possibly know anything about his sins. I am sure the great majority there that day were not interested in Jesus forgiving this man's sins, but rather in Him healing this man's sickness. Jesus' viewpoint was that forgiveness of sins is more important than healing sicknesses.

Jesus died on a cross to forgive sins. Most people want tangible blessings, not hypothetical forgiveness of sin. Forgiveness of sin does not seem to carry a lot of weight. It is not top priority, even though it is most important to God. Our tendency is to seek God first for health and wealth. We forget to think about our sins. The church exists not to heal people but to forgive sin. The forgiveness of sin is its number one concern. Jesus pointed this out and we need to get it. This is a big deal! When you break an earthly law and get caught, you have to pay a price. The courts do not forgive you and send you on your way. You either pay a fine or spend some time in jail. The same thing goes in personal relationships. When someone sins against you, they need to do something good in order for you to be friends again. Some of the scribes thought Jesus was a blasphemer. Their reaction was caused by an omission of any reference to repentance, good work, or any other proof from the paralytic man that he was sorry. Jesus simply told him, "Take courage, son; your sins are forgiven."(v. 2)

Jesus healed the paralytic man to prove that He has authority to forgive sins. He told the scribes, "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and walk?'" But so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then He said to the paralytic, "Get up,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And he got up and went home."(vv. 5~6) It is obviously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since the validity of the

statement cannot be tested as easily as saying to a paralytic 'Get up.' Jesus showed His power to forgive sins. When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John for baptism; he screamed and yelled at them saying,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Therefore bear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Mt. 3:7~8) In other words, John was telling them that if they wanted to repent, they also needed to do something good. This was John's message, but not Jesus. Jesus preache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Mt. 4:17)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God continually forgave His people but His people were not serious. The same is true with you. Jesus forgives your sins but you do not think your sins are terrible and you keep doing them again and again. When you come to Jesus, do you think about your sin or do you just focus on your blessings? Matthew 6:14~15 say, "For if you forgive others for their transgressions,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But if you do not forgive others, then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transgressions. You must practice your faith. Jesus forgives your sin, and so from your heart you must forgive others.(Mt. 18:35) The paralytic could not walk, but the Bible tells us that we need to walk with Jesus. How can you walk with Jesus? You walk by faith. If you obey God that means that you walk in His way. Like the four men, if you bring someone to Jesus in faith, He will forgive their sin. Obedience means faith. Sin makes you incapable of walking in His way, but your faith keeps you on His path. Faith gives you new life. When you walk by faith, your sins are forgiven. Jesus has the authority to forgive your sins,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Mt. 28:18) God will forgive every person if they come to Him by faith.

Jesus built His church here on earth. He gave it all His authority, "Truly I say to you,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Mt. 18:18) His authority is not for bread and money, but for the forgiveness of sins. He took the cross and paid the price for all sin. He asks you to come to Him so that He can give you rest. Thank Jesus for forgiving your sin, thank Jesus that you can walk in God's way by faith, and thank Jesus that you have the capability of bringing another soul to Him. Today is the second Sunday of Lent. Please go to the cross and know that Jesus has total authority to forgive your sins. Thank Him for this privilege. Amen. 卐

용서

- (*)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 (*)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2~8)



김성관 목사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이끌려 나와 있습니다. 대담한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끌어올려 그곳에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서 계신 바로 앞에 그를 매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막 2:3~4)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결단, 사랑, 희생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예수님은 신실한 네 사람이 아니라 그 병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는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해 알았을까 속으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확실히건대 그날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것보다 그의 병을 고치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보다는 현실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죄 사함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과 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죄 사함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고 구속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정은 아무 대가 없이 죄인을 용서하거나 석방해 주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친분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회개나 선행 또는 뇌유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언급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죄 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5~6절) 분명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는 말처럼 그 효력이

쉽게 증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소리쳐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 3:7~8)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 4:17)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구약 전반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지만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렁 거듬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14~15는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은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마 18:35) 중풍병자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네 사람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죄는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없게 만들지만, 믿음은 천국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자신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18) 예수님의 권세는 락과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사순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은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2. 6.)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마태복음 1:1~17)

오늘은 제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다.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Lent)이 시작된다. 감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절의 첫 메시지는 이것이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성에 집중하자. 신약성경의 첫 구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 이 말씀을 시작으로 본문 17절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였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전통 때문에 이 구절을 오해할 때가 많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조상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었다. 역대상, 역대하에 기록된 이름들이다.(대상 1:28)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 처음과 끝, 높고 낮음, 존귀와 영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대하 36:23) 인간의 그 어떤 흔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된다. 또한 마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 그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은 역대상, 역대하의 기자들이 계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단체, 사회와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에 창조하신 것이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인간의 생각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마 1:17)

마가복음 강해 ①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놓고

다투시다

(2:23~3:6)

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인가? 안식일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출 20:8) 특히 하나님은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출 20:9~10) 그 이유는 안식일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출 20:11)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 규례에 39개 조항을 추가하였다. 더군다나 이 조항을 모두 지킬 때 메시야가 온다고 믿도록 가르쳤다. 결국 안식일의 참 뜻은 잃어 버린 채 또 하나의 율법과 전통을 만들었던 것이다.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동으로 보이는 일을 했다. 사실 그들이 했던 것은 노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앞을 막고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떼는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마 2:24)에 대하여 전설범을 잘 때던 예(마 2:26)를 들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라도 주인이니라"(마 2:27~28)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하셨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 주신 것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임을 깨달아야 했다.(마 1:25~26, 2:10)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

역설적인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전통과 율리를 강조하는 인간들에게는 역설적인 사건이다. 계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는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사역의 흔적뿐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것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천시하던 여인들의 이름이 다섯 명이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다. 그럼에도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와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다.(마 1:3~4)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의 창녀였다. 랏도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다. 그럼에도 라합과 랏은 각각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날 때 중요한 계보가 되었다.(마 1:5) 우리와의 아내는 여루한가? 그녀는 남편이 있음에도 다윗과 간통하였다.(마 1:6)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하였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모든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율법과 전통, 율리와 도덕을 놓고 볼 때 그녀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녀는 시골 처녀였다. 더군다나 이미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시켰다.(마 1:16)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볼 때 역설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다. "만물보다 거etz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렐 17:9) 우리는 죄인이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포잡하지만 우리는 심히 부패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이다! 간절할 기도이다. "너는 내게 부끄럼 없는 내게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렐 33:3)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용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썩어진 인격을 자랑하지 말자. 더 이상 성경을 왜곡하지 하나님은 온총을 속이지 말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거라 아니하였거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것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붙여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렐 27:15)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

마태는 성경이 모두 이루어짐을 기록하였다. 우리의 삶, 죽음 그리고 축복과 심판을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예측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측할 수 없다.' 자꾸만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자. 단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총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자.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려졌다.(롬 8:38~39)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자신의 생각, 지성, 경험에 맞다고 교만하지 말자. 말씀을 곡해하여 망령된 진조나 전통을 만들지 말자. 나의 기도와 생각과 다르더라도 겸손히 마음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마 1:17)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순절이 되길 원한다. "십자가 밝히 보여 주소서,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찬 481장) 아멘.

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권위와 신분이 받게 될 타락만을 걱정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에서 고소할 꾀마련을 잡았다. 이어서 종교지도자들은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때때로 침묵 안에 있던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시하였다.(마 3:2)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의 악한 생각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 이것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는 예수님의 목숨이 아늑가도(마 3:4~5)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열일히 따지자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든 안식일 관련 추가 조항을 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던 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다만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었음을 기뻐하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마 3:6)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력을 사냥하기에 빠지고 험한 길을 외면한다. 단지 이 땅에서의 행복함 삶에만 관심을 둔다. 결국 억지 조항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고소(마 15:3~4)할 계리를 찾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성경 66권 이외 또 다른 율리와 전통을 만들어 지킬 것을 서로에게 강요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뿐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다름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55년간 통치하며 유대를 주로 물들게 했던 므사데(왕하 21:2~16)가 되기보다는 한 편의 설교도 마치지 못했으나 "인자"(렐 7:56)를 보았던 스데반이 되기를 원한다.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 함께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자. 아멘.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너 곧 가거라 저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딸이아기 월요새벽기도회를 가야 했기에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길은, 아들 혼자 버스를 환승해가면서 가끔씩 월요새벽기도회를 다녀오다 정작 나는 교통의 불편함과 영적 계층으로 특별새벽기도회 외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아이들과 셋이서 택시를 타고 월요새벽기도회에 가던 첫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던지, 택시에서 내리면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본당에 들어섰다. 고요한 새벽 강단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던지, 택시비 1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평소의 1만 원은 나와 우리 가정에 굉장한 큰 돈이지만 월요새벽기도회에서 받는 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듣는 마가복음 강해가 어찌 그리 달고 오묘한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어느 날 새벽, 주님이 주시는 찬양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다. ‘주님 제가 얼마나 즐겨 부르던 찬송인데, 저의 지금 열려 걱정 근심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주님, 주님이 늘 지켜주시는데 믿을 없는 이 죄인이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하였다. 그 날 새벽 마가복음 2장 18~22절 말씀의 ‘금식기도’에 관한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때 나는 혼자서 아침 금식기도 중이었기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었다. 외신적인 종교인의 금식기도와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주여, 제가 지금 어느 부류의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금식기도, 종교인의 형식적인 금식기도인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전에는 딸아이의 대입과 진로를 위해, 이제는 아들의 시험을 위해 기도하던 나였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신앙을 위해 때때로 생기는 가정의 어려움들로 인해 몰려 주께 부르짖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였다. 마치 바리새인과 종교인의 금식기도를 드렸던 나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다.

이제 나의 기도 제목들이 변하고 있다. 딸이아기 예수님이 팔려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찬양시역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의 갈 길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천국일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한다. 믿음이 약한 남편이 사위여님의 장례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있다. 고생하며 월요새벽기도회에 나오는 것은 아직 못마땅하며 한다. 하지만 주님이 남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일생을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주님, 무너진 신앙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주님의 재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종인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연옥(집사, 12교구)

김진미(집사, 1교구)

바리새인과 같은 나를

세상으로 한 걸음을 시작하는 월요일의 어둑한 새벽, 이불 속의 나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거룩한 길 따라…….”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마가를 인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거룩한 얼굴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실 때마다 놀라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깊이 배어 있는 죄의 큰 뿌리가 너무나 담연하고 그동안 생각해 왔던 저의 가치관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저의 무지에 숙연해집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이려 했을까?’라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말씀을 통하여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타인이 나를 건드리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와 합하여 죽었음을 믿지 않는 결과 믿음없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배운 대로 배워 살아온 열매는 영동한 판단과 상치, 영동한 죄책감과 회개와 기도였습니다. 주님보다 앞섰던 판단과 선택이 더 쉽고 그럴 듯해 보여 슬쩍 넘어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더 쉬워 보였습니다. 또 믿음은 십자가를 열람하면서 영적인 삶을 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박기엔 주님을 열심히 믿는 참 신자 같지만 돌아서면 죄를 삼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속에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매순간을 저와 함께 살아 주세요.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 빛으로 나의 죄 된 모든 모습을 비추 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빛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늘 부름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자료 거듭나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고 전도!

오늘은 수요일, 교회주변전도와 총력전도를 하는 날. 수요일부예배와 영성훈련을 마친 뒤 점심먹을 때까지 성령충만함으로 통쳐 있던 전도회원들이 병원에 간다가나 집에 손님이 오신다는 이유 등으로 몇몇의 회원이 가고 나면 소수 인원들이 전도현장에 나갑니다. 늘 가던 사무실과 연립주택의 경비아저씨들은 “아름답, 또 왔어요?”라고 인사를 하면서도 절에 다닌다가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 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하면서 전도지를 놓고 돌아올 때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든 왜 저 사람들이든 교회에 와 보지도 않고, 믿어 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 자리에 없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그분을 찾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일요일에도 먹고 살아가 해서 교회를 못갑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분께 다시 물었습니다. 이어 세상을 작별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문을 트워서는 전도지를 주면서 더욱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도구임으로 “비가 와도 전도, 눈이 와도 전도, 쉬지 않고 전도!” 이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의 되시니.” 잃어 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이분옥(권사, 10교구)

거듭난 성령의 도구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해온 저 여느덧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해주었다. 지난 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2008년 교구일꾼을 위한 교육이 네 차례에 걸쳐 있었다. 1월에 이루어지는 교구원례회, 지역모임, 남성구역예배, 수요예배, 금요찬양회 등 뜻밖에도 늘 일요일 교육을 4회나 더하던 신년계획 등으로 바뀐 회사업무로 참 참할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교육을 받게 하셨다. 첫날 강의를 들으며 나의 지금까지의 사역들이 부끄러웠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란 기도만 하였으니 말이다. “구역은 천국교회의 5대 목표를 실천해 가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란 말씀에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만 직분을 감당하려 했던 내 자신의 영적 무지가 깨어졌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교육을 이틀이 걸 수 있는 지평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대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한다.

“주여,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세상의 가치와 영예와 권리를 쫓으며, 내 자신의 경험과 의를 내세우는 고만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회개와 간구에 은혜로우신 주님은 ‘2008년 구역일꾼 교육’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 성령의 은화로 남성구역장인 직분을 통해 어떻게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다. 2008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사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동일(집사, 16교구)

해답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그 긴 그 긴 어둠의 터널에서 주님이 건져 주셨을 텐데……’, 2008년, 선생님이 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어릴 적부터 영아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대학교 영문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 영아선생님이 되기 위해 유학도 가려고 했다. 하지만 꿈이 되지 않아 방향 아닌 방향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때만 해도 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주님께 내려 놓고 온전히 기도에도 힘을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기회가 찾아왔다. 대치동에 있는 한 논술학원의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집에 가서도 밤새 울며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편지도 써 보고, 기도일기도 쓰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에 합격통보를 받았다. 사실 학원에서는 내가 국문과가 아닌 영문과 출신이어서 망설였다고 한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에 원장님께서 나를 고용하기로 확정하셨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불신자였던 내가 하나님을 역사하신 것이다. 수많은 시련, 역경, 환난을 겪고 난 후, 무언가에 감금함에 허덕이고 있던 차에 비로소 해답을 얻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원래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셨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고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다. گوش에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며 마음이 생각났고 마음이 깨달아졌다. 나의 일생과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낯가림이 심한 내가 지난 날의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수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나에게 강하게 무언가 느끼도록 보여 주신 것이다. 내게 다가온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임을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별 것 아니겠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말을 한 들으면 사람들이라도 주어서 달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좋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양희재(성도, 새가톨릭독부)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 찬양하리

나는 지난 50년 동안 주로 교회학교에서 봉사하다 보니 찬양대원으로 헌신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오랜 동안 교회에 몸 담아 자연스럽게 찬송에 익숙하게 되었지만 가사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찬송에 머물러 있었다. 1997년,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주일예배와 찬양예배, 금요찬양집회에서 아름다운 찬양 중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 10여 년을 듣고 따라하다 보니 음치 중의 음치인 나도 찬송가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찬송가 가사를 많이 대하다 보니 가사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작사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제 내 나이 만 예순아홉으로 내년이면 시무장로로 은퇴하게 된다. 살갑이 빠른 세월 속에 아쉬운 마음이 많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65세 이상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찬양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제일 먼저 원서를 들고 달려갔다. 그러나 나이는 많고 기력은 점점 쇠약해지고 고질적인 천식으로 감기에 걸리면 기침부터 나오는 탓에 걱정이 앞섰다. 그래도 좀더 잘해 보려고 찬양대원 양성부를 거친 뒤 실로암 찬양대에서도 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악보와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르는 찬양은 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매주 수요일예배와 금요찬양집회의 찬양곡의 음과 가사를 외우는 일은 나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항상 주머니에 가사를 적은 쪽지가 있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나 등산을 할 때에 손에 들고 외운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받는 은혜이다. 일반성도를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로 구성된 실로암 찬양대에서는 맑고 힘이 넘치고 영감으로 찬양을 부르기에 내 영혼도 깨끗해짐을 느끼며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 예루살렘 찬양대에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 초저녁 잠이 많은 대원들은 물러오는 줄을 따서 지키는 그 자리는 참으로 귀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믿음을 지킨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다. 또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연습시간 중의 기도회는 특별하다. 아픈 대원들과 총원들의 성도를 위한 살아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고백서 5장 15절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다. 2008년 새해에도 실로암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 찬양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케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찬양대가 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항상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박철구(장로,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이 글은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벽에 새겨 있습니다. ‘주기도’ 구절구절에 대해 회개와 성찰의 말을 한 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여 살아 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만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알간함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길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 채만 채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시옵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야적도 양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다나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아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롬 2:5)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삶의 조정을 맞추십시오.

■ 부록A				
박기근	이국근	안창경	장진호	김익환
12.20	15.20	15.20	19.00	19.00
장 훈	이현덕	이희석	하용철	안건일
4.20	12.20	12.20	12.20	22.20
정승진	양재호	이성진	이재영	김재현
18.20	20.20	6.20	12.20	16.20
김준호	홍두만	황진표	유재진	강병무
13.20	10.20	20.20	11.20	11.20
전성민	김철규	20.20	서원철	박영환
신영환(신영환)	최정호	12.20	19.20	20.00
김원준	최창복	최강진	박광현	강진현
12.20	15.20	25.20	24.20	9.20
이광현	강호성			
교과서(교과서)	21.20			
■ 여전도사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보자
15.20	5.20	5.20	2.20	16.20
김영민	강덕원	최은실	전은희	김정자
6.20	23.20	12.20	12.20	14.20
김정희	유미자	류진희	한성심	임태주
12.20	12.20	12.20	25.20	17.20
강영미	이옥자	이복순B	전영미	이혜숙
22.20	6.20	11.20	19.20	6.20
황순란	김정순			
13.20	24.20			
■ 전일지휘자 서훈성 김원섭				
■ 전일교향지장 김요한				
■ 전일전도사 장연희 노은영				
■ 전 교 사 김소환				